스몰캡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에이치시티	Not Rated (M)	- (M)

계량에 관련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2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계량법은 2000년도에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25년만에 사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 배경은 산업 첨단화,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의 중요성이 상향되고,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0월 28일 2차 공정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AS-IS: 다수의 문제점 존재

계량은 무게, 길이, 시간 등 물리량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 법적 체계이다. 1961년에 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종의 계량기를 법적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계량법의 법적계량기 관리체계를 통해 13종 법정계량기의 정확성 ·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계량기 시판품 조사 부적합률: 20년 26.3%→25년 5.3%)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반도체 · 우주 · 항공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라 산업내 초정밀 제조 공정 확산, 안전 · 신뢰성 기준 강화 및 생산 효율성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량은 제조 · 품질 관리 등 산업현장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지만,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은 미비하다. 특히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등의 취약은 제품품질 저하, 생산비용 증가, 산업재개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1961~99년)→계량에 관한 법률(00~)로 개정되면서 산업계량 및 과학계량 영역이 「계량법」에서 분리되었다. 「국가표준기본법」이 일부 과학 및 산업계량을 포함하지만 국가체계 확립이 중심이어서, 산업계량 규정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현 법정계량기 관리체계는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의 고정된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법정계량기 지정 수요에 대응이 어렵다. 반면에 외국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 형식승인, 검정→재검정/교정 등 관리방식을 다양화하여 폭넓게 법정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다.

셋째,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위탁 관행에 대한 법적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법정계량의 근간인 '상거래 저울'이 정기검사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계량검사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인력 · 전문성 보안을 위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 상태에서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약 49%)하여 수행하고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계량 · 측정기 관련 정책 협의 구조가 미비하다.

To-Be: 「계량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 해소 추진

산업계량 강화.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 확보로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 다양화.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개선하여 계량기 특성과 사용환경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형식승인+검정, 형식승인, 검정)으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계량기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민생활속의 각종 계량 · 측정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 · 민간의 계량기 관리역량 강화.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상거래 저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범부처 계량 · 측정 협의체인 계량측정정책협의회 신설.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의 신뢰성 · 적합성 관련 중요사항 협의를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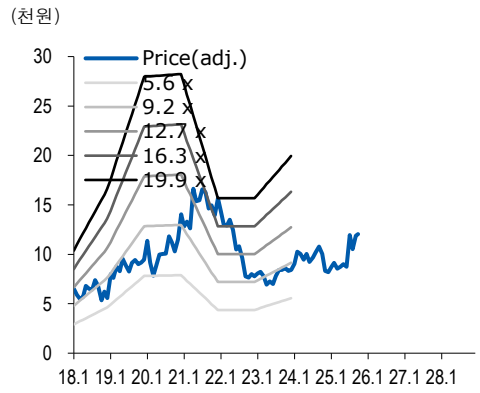
Conclusion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정밀한 계량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규정 및 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적으로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즉, 교정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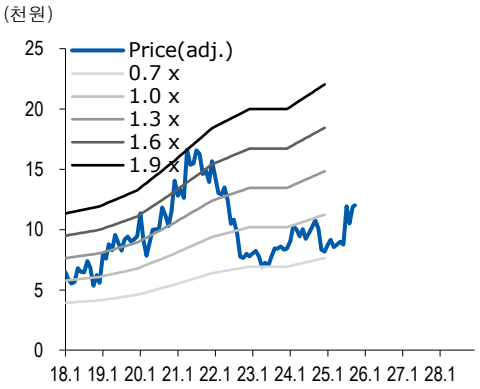
법적계량기도 획일적인 방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계량 방법들이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기업으로 **에이치시티**(072990)이 있다. 에이치시티는 시험인증사업과 교정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첨단 제조산업내 정밀도 요구사항 상향,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요구되는 제품 요구사항 증가, 정확한 측정과 데이터가 요구되는 R&D 투자 확대 등으로 교정사업내 실적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계량법 개정은 기업들의 교정 필요성 확대 및 교정주기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다양한 산업내 교정사업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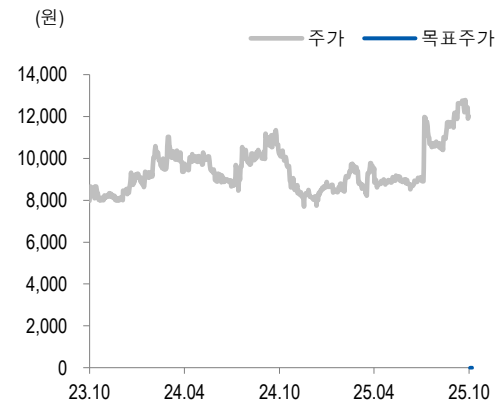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에이치시티 (0729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0-24	Not Rated	-	1년		
2025-10-1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괴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0-23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